

# 여성의 눈으로 새롭게 읽는 동화와 우화

동화 속에 담긴 선입견과 편견 제거... 통쾌한 역설이 매력

여성학 입문자에게 아주 쓸모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해온 《새내기를 위한 여성관련 도서목록》(여성사, 1994)은 이즈음 효용성이 많이 떨어졌다. "빠른 시일내에 좀더 알차고 풍부한 내용을 담은 목록을 내놓겠다"는 위인들의 바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도서목록의 증보판을 펴낸다면, 두께도 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제 항목도 여럿 더해질 것이다.

## 잘 알려진 동화의 비틀기

'페미니즘 동화'는 새롭게 추가될 주제로 가장 유력한 후보다. 여기에는 '동화혼란놀이'(이링 폐처), 'PC(정치적으로 올바른)동화'(제임스 핀 가너), '성평등 대안동화'(김홍숙)가 포함된다. 서로 다른 이름을 지닌 것을 하나의 테두리에 묶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사실, 방금 거명한 동화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형식면에서의 뚜렷한 일치는 그런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페미니즘 동화'는 '비틀기'가 주된 구현 방식이다. 잘 알려진 동화에 대한 패러디를 통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제임스 핀 가너의 표현을 빌리면, "원전'에서 점검되지 않고 지나간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서구문화'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동화'를 '정화'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페미니즘'에 가장 근접해 있는 '성평등 대안동화'는 '패러디 동화'와는 가장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기존 동화에 나타난 성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개작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에 기초한 창작동화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어서다.

'페미니즘 동화'에 대한 소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페미니즘 동화'가 아니라 '철학동화' 또는 '동화혼란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링 폐처의 《누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웠는가》(철학과현실사, 1991)는 그림형제의 동화를 재해석한 책이다. 동화를 혼란시키는 방법으로는 문헌학적 텍스트 해석과 정신분석학, 그리고 역사적 유물론을 이용했다. 이에 따라 혼란놀이는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되며 매우 정치적인 색채를 띤다. 페미니즘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내용의 개작보다는 기존 동화에

**"대안 동화를 쓰려면 두가지 능력을 갖춰야 한다. 숙련된 글쓰기와 페미니스트적 시각이 그것이다. 우리의 경우, 작가는 여성문제에 무관심하고 페미니스트는 글쓰는 능력이 아쉽다. 근본적으로 상상력의 결핍이 문제다."**

동화를 재해석하거나 패러디한 이야기들이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 비판적 해석이 우세하다.

우리는 패러디에 의한 동화 재구성의 진면목을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스토리' 시리즈(실천문화사, 1996)를 통해서 보게 된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베드타임 스토리》, 《좀더 정치적으로 올바른 베드타임 스토리》, 《정치적으로 올바른 홀리데이 스토리》 등 세권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널리 알려진 옛이야기들이 사회의 소수파를 존중하는 내용으로 각색돼 있다. 특히 첫째권과 둘째권은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이 돋보인다. '베드타임 스토리'는 옛이야기에서 성적·가부장적·남근중심적 편견을 걷어낸 알짜배기 '페미니즘 동화'라고 할 수 있다.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진열대 앞에서 어느 독자가 혼자말처럼 중얼거린다. "어라, 백설공주가 아니라 흑설공주네!" 《흑설공주 이야기》(뜨인돌)를 보고 하는 말이다. 지난 4월 출간된 이 책이 녀달만에 외국소설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오르내리는 것은 좀 의외의 현상이다. 출판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광고 공세를 펼쳤거나, 이렇다 하게 언론에 소개된 적도 없는 까닭이다.

여기에는 출판사의 몇가지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흑설공주 이야기》는 '페미니즘 동화'라는 이름으로 나온 최초의 책이다. 그것도 "여자와 남자가 평등한 페미니즘 동화"다. 후속편 《황금요정 이야기》(6월 출간)만 해도 '페미니즘 신화'라는 문구를 책표지에 달고 있다. 원래 《흑설공주 이야기》와 《황금요정 이야기》는 환권의 책이다.



대안동화로 꼽히는 《씩씩한 마들린느》(네버랜드) 중.

여성학자 바바라 G. 위커가 쓴 《페미니스트 요정 이야기(Feminist Fairy Tales)》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형제동화나 안데르센동화의 패러디를 모아 먼저 펴낸 다음, 서양의 신화와 전설을 패러디한 것들은 나중에 따로 묶어냈다.

원 동화의 즐거움을 잘 모르는 '페미니즘 신화' 편에 대한 호응은 그다지 높지 않다. 출판사의 분리전략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한편, '페미니즘 우화'로 번역 소개된 《신데렐라가 집을 나간 이유》(책세상, 1997)는 판매가 다소 부진하다. 이 '페미니즘 우화'는 지나친 압축과 변형으로 인해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페미니즘 동화' 역시 어른을 위한 동화다. 게다가 어떤 것은 인문 교양의 습득에도 기여한다. 때문에 대형서점에서 책을 찾으려면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동화라고는 해도 어린이 코너에는 없다. 뜨인돌 출판사는 책의 분류에 인문서보다는 외국소설 쪽을 택했다. 그 쪽이 독자눈길이 더 많이 오간다는 판단이 들어서다. 그 판단은 적중했다. '페미니즘 동화'의 매력은 내용 자체에 있다. 《흑설공주 이야기》의 맨 앞에 실린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에 대한 독후감은 "통쾌하다"는 한마디로 충분하다.

## 통쾌함 주는 페미니즘적 뒤집기

'페미니즘 동화'는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 주인공 남자는 여자로 바뀌고, 악역은 남자가 도맡는다.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의 알라딘은 아가씨로 나오고, 알라딘을 피어내 욕심을 채우려는 미술사는 당연히 남자다.

또한 '페미니즘 동화'는 세부 묘사의 차이 점에도 불구하고 모두 비슷하다는 느낌을 준다. 패러디의 특성상, 잘 알려진 몇몇 동화를 집중적인 각색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빨간 모자〉, 〈개구리 왕자〉, 〈잠자는 공주〉 등이 패러디되는 단골손님들이다.

주제면에서는 '자매애(sisterhood)'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백설공주와 계모 왕비와의 화해나 신데렐라와 계모 및 언니들 사이의 화해가 그 본보기. 일부 '페미니즘 동화'는 '아마조네스'를 이상향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뜨인돌 출판사의 조미영 편집장은 "《흑설공주 이야기》가 반응을 보이자 에이전시로부터 그런 종류의 책을 여러권 소개받았다. 하지만 대체로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관망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내에서도 '동화새로쓰기'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일과성에 그쳤다. "대안동화를 쓰려면 두가지 능력을 갖춰야 한다. 숙련된 글쓰기와 페미니즘의 시각을 고루 갖춰야 한다. 우리의 경우, 작가들은 여성 문제에 무관심하고, 페미니스트는 글쓰는 능력이 아쉽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인 상상력의 결핍이 가장 큰 문제다." 《성평등 대안동화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6)를 펴낸 김홍숙 연구원의 지적이다. 해외 '페미니즘 동화(또는 우화)'의 생산자들은 페미니스트 아니면, 비전문 작가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최성일〉